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니
이들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3월 10일)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숟 불자 대상 ‘본격화’

조계종 중앙신도회, 법공양 캠페인 전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최초 종단본 〈불교성전〉을 보급하기 위한 법공양 불사가 전개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올해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본 〈불교성전〉 갖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교성전〉은 조계종 종단 사상 처음으로 펴낸 종단본 불교 종합 지침서로 지난 2월 24일 봉정된 바 있다. 조계종은 2018년 불교성전편찬위원회를 꾸려 경 · 율 · 론 삼장과 선어록에서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발췌해 펴냈다. 조계종은 〈불교성전〉 편찬과 함께 이를 수지 독송하는 것을 신행문화 활성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최근 대의원 총회와 종단 보고에서 〈불교성전〉 갖기 캠페인을 확정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 양성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5월 중 불사선포식 개최
인증 이벤트, 사경전 등
참여형 보급캠페인 전개
친구 · 동료 선물릴레이도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크게 5월 중 법공양 불사 선포식과 〈불교성전〉 릴레이 법공양, 인증사진 이벤트, 손글씨 공모전 등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의 핵심은 〈불교성전〉 릴레이 법공양으로 전국 불자들이 가족과 친구, 동료 등에게 종단본 〈불교성전〉을 선물하면 선물받은 사람은 다시 2명에게 〈불교성전〉을 선물하는 나눔 릴레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한 5월에는 〈불교성전〉을 소장한 사진을 들고 있거나 이를 활용해 수행하는 모습, 도반에게 선물하는 모습을 찍은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인증 이벤트는 종단본 〈불교성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인증 사진을 SNS, 해쉬태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중앙신도회에 발송하면 모바일 쿠폰 형식의 사은품이 증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중앙신도회는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 신도를 대상으로 하며, 〈불교성전〉 4페이지, 2000자 내외로 필사 노트에 성전 문구를 정성스럽게 필사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중앙신도회장상 등이 수여된다. 〈불교성전〉 독후감 · UCC 공모전과 사찰 순회 릴레이 독송법회 등도 논의 중에 있다.

이밖에 〈불교성전〉을 구입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해 이메일을 통해 〈불교성전〉 문구를 전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메일링 서비스는 카드뉴스 방식으로 제작된다. 카드뉴스는 〈불교성전〉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천덕목과 수행법을 안내해 각 법회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법공양 불사는 불교계 언론과 함께 진행된다. 조계종 출판사를 비롯해 유력 교계 미디어 · 언론 매체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여 〈불교성전〉 홍보와 보급에 나선다.

불교성전편찬위와 중앙신도회 측은 “〈불교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불자들이 성전을 수지 독송해 신행활동에 활용할 때 있다”며 “사찰 법회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전법 현장의 적극적인 보급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교성전〉은 인터넷 교보문고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주요 사찰 서점을 통해 불자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편찬 주무부서인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성전〉 출판을 맡은 조계종 출판사는 〈불교성전〉의 보급을 위해 사전 기획단계에서 가격을 대폭 낮추기도 했다.

서울 조계사 맞은편에 위치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지하 불교전문서점 ‘향전’과 전법회관 1층에 위치한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 직영 매장 ‘승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서울 봉은사, 평창 월정사, 대구 동화사,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등 전국 10여 개 주요 사찰서점 등에서도 〈불교성전〉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불자 역량 결집을 위한 정보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찰, 불자기업 등을 등록하고 신도 혜택 및 정보를 공유하는 불자 네트워크 일환이다.



도심 걸으며 코로나 치유 한국명상총협회와 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명상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의 일환으로 4월 10일 진행된 양재천걷기명상대회서 한국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유튜브 걷기명상을 지도하며 대열을 이끌고 있다. 행사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묵언 속에서 진행됐다. 〈관련 현장 기사 5면〉
글 · 사진=노덕현 기자

“합천 해인사역 위치 재검토하라”

유치위, 청와대서 기자회견
선정지 소유 현황조사 촉구
지역주민 릴레이 시위 예고
郡관계자 땅투기 의혹 제기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에 포함된 합천해인사역의 위치를 기존 추진지인 합천읍 서산리가 아닌 합천군 야로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합천군이 기존 역사위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군청 관계자의 땅투기와 관련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합천해인사역유치위원회(위원장 김태구)는 4월 12일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조건과 역사적 · 세계적 명분을 반영해 합천해인사역사 위치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위원회는 “합천해인사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랜드마크인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반영하고 2개 도와 6개 시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 곳은 합천군 야로면”이라며 “본 철도노선의 목적이 합천군만을 위한 것이 아닌만큼 철도규칙 제20조에 명시된 정거장의 설치 기준인 지형조건, 교통수요, 경제성, 인근정거장과의 거리 등의 기준을 전면 무시한 역위치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천해인사역유치위원회는 4월 12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유치위원회는 합천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해 합천군 공직자와 선출직 관계자의 땅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유치위원회는 “기존 역사 위치로 거론되는 합천읍 서산리와 율곡면 임북리 일원에 전현직 공직자와 선출직의 투기 의혹이 있다”며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 등기현황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합천읍 서산리 일대 2010㎡ · 3999.5㎡ 부지의 논이 前 합천군청 행정국장 서모 씨의 부인 명의로 등기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유치위원회는 “역사 유치 이면에 근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현직 공직자와 선출직들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치위원회 측은 야로면 일대에 합천해인사역사가 설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 가야산국립공원 등 연간 방문객 100만명 편의 제공 △경상남북도와 대구광역시 등 3개 시 · 도와 9개 시 · 군에 20분 이내 접근 가능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 역간거리 최적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약 50km 지점 △향후 달빛내륙철도 건설시 환승역으로서 최적의 위치 등을 꼽았다. 이에 해당 지역에 역사가 설치될 경우 관광객 유치 및 물류 · 교통 중심거점 역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을 혁신도시로 견인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치위원회 소속 지역주민 10여 명이 참석했다. 유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번을 정해 주민들의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